ZOOM -IN

국내외 중앙화 거래소(CEX)의 스테이킹 서비스 현황

□ 스테이킹(Staking)은 사용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가산자산을 일정 기간 예치하여 블록체인 검증에 활용하고 그 대가로 가상자산을 보상받는 것으로, 지분증명(PoS) 알고리즘을 채택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가능

□ 2023년 2월 9일, SEC는 미국 기반의 세계 3위 가상자산 거래소 크라켄(Kraken)의 스테이킹 서비스가 증권법을 위반하였다고 소송을 제기하였고, 크라켄은 벌금을 내고 미국 고객을 대상으로 한 스테이킹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합의

□ 지금까지 거래 수수료 중심으로 수익을 창출했던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점차 수익원 감소에 대비하여 다른 영역으로 관심을 돌리기 시작하였으며, 사업 다각화를 위한 스테이킹 서비스가 확대되는 추세

□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플랫폼에서 스테이킹 서비스가 주요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증권성 여부를 점검하고, 향후 투자자 보호를 위해 보안 및 보상 분배 구조 등 스테이킹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제도적 마련이 필요

□ **스테이킹(Staking)은 사용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일정 기간 예치하여 블록체인 검증에 활용하고 그 대가로 가상자산을 보상받는 것으로, 지분증명(PoS) 알고리즘을 채택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가능**

— 스테이킹은 구조상 은행에 돈을 받기는 예금과 유사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네트워크에 맡기는 행위로 이를 통해 블록체인 검증에 활용하고 그 대가로 가상자산을 보상으로 분배받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즉, 스테이킹은 가상자산의 운용 수익을 대가로 보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가상자산을 일정 기간 예치함으로써 블록을 생성하는 검증 작업에 참여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가상자산으로 받는 것

— 블록체인이라는 네트워크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블록을 생성하고 연결하는 방식을 통해 거래를 기록하고 검증해 주는 누군가가 필요한데, 이러한 블록을 생성 · 기록 · 검증하는 방식에는 작업증명(Proof of Work: PoW), 지분증명(Proof of Stake: PoS) 등이 있으며, 스테이킹은 PoS 기반의 블록체인에서 활용됨

- PoW는 블록체인 최초의 블록 생성 알고리즘으로, 채굴자(miner)가 블록 생성을 위한 컴퓨터 계산 작업을 경쟁적으로 수행하고, 그중 가장 빠르게 주어진 계산 과제를 수행한 채굴자에게 블록 생성 권한을 부여

- PoS는 블록 생성에 참여하는 검증자(validator) 자신이 보유한 가상자산의 지분(stake)을 바탕으로 블록의 생성·검증 권한을 부여받는 방식으로, PoW 방식과는 달리 보유한 지분의 양과 기간에 따라 블록의 생성·검증 권한이 높아짐

— 스테이킹은 24시간 동안 자신의 컴퓨터 등을 통해 노드(nod)를 운영하여 블록 생성을 검증해야 함

-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킹을 하기 위해 32ETH가 필요한데, 이러한 높은 장벽으로 인해 가상자산 거래소나 관련 서비스 업체가 스테이킹을 수행

— 스테이킹의 참여자가 늘어나게 되면 블록 생성과 검증에 참여하는 참여자 수가 많아지게 되어 보안성과 안전성이 증가

□ **2023년 2월 9일, SEC는 미국 기반의 세계 3위 가상자산 거래소 크라켄(Kraken)의 스테이킹 서비스가 증권법을 위반하였다고 소송을 제기하였고, 크라켄은 벌금을 내고 미국 고객을 대상으로 한 스테이킹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합의**[1)]

— SEC는 크라켄의 스테이킹은 등록되지 않은 증권을 판매한 혐의가 있으며, 연간 수익률이 무려 21%에 달하지만 스테이킹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제공한 보호 기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발표

- 크라켄이 회사의 상태, 청구 수수료, 회사가 고객의 토큰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판단

— 이러한 SEC의 제재에 따라 크라켄과 마찬가지로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앙화 거래소인 코인베이스(Coinbase)의 주가가 14% 넘게 하락하였으며[2)],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퀴드(liquid) 스테이킹 프로토콜 토큰 가격이 상승[3)]

- 이는 중앙화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스테이킹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CounCecko에 따르면, 약 84억달러의 이더리움(ETH)가 리퀴드 스테이킹 되어있는 Lido Finance의 LDO 거버넌스 토큰은 한 시간 만에 10.4% 상승
- 경쟁사인 Rocket Pool의 RPL은 7.3%, Persistence의 pSTAKE는 6.7%, StaFI의 FIS는 11.4% 상승

□ **지금까지 거래 수수료 중심으로 수익을 창출했던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점차 수익원 감소에 대비하여 다른 영역으로 관심을 돌리기 시작하였으며, 사업 다각화를 위한 스테이킹 서비스가 확대되는 추세**

---

1) SEC, 2023. 2. 9, Kraken to discountinue unregistered offer and sale of crypto asset staking-as-a-service program and pay $30 million to settle SEC charges, Press Release.

2) Braun, H., 2023. 2. 11, Coinbase's staking service faces questions after Kraken's SEC settlement, CoinDesk.

3) Sandor, K., 2023. 2. 10, Liquid staking tokens rally as Kraken shuts staking service to settle with SEC, CoinDesk.

— 해외의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크라켄, 바이낸스의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한 시장점유율은 각각 11.5%, 7.0%, 5.4%을 기록[4)]

• 국내의 경우, 2022년 1분기 기준 코인원 플러스의 이용고객 수는 전년동기 대비 72% 증가한 76,869명, 예치금은 2,724억원에 달함

— 국내에서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주요 중앙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한 이용고객 수가 증가함에 따라 종목을 늘리는 추세

• 2023년 5월 기준, 업비트는 3개, 빗썸은 빗썸 플러스를 통해 10개, 코인원은 코인원 플러스를 통해 3개의 가상자산 스테이킹을 제공하며, 코빗은 이더리움 2.0을 포함한 5개의 가상자산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 예정

— 스테이킹을 제공하는 거래소는 상품에 따라 최소 스테이킹 수량, 스테이킹 기간, 수수료, 보상률, 보상 수량, 보상 지급 주기 등을 차별화

• 타 거래소와 비교했을 때, 코빗에서 제공하는 쿠사마나 폴카닷 스테이킹의 예상 보상률의 경우 각각 14.78%와 14.83%로 상당히 높으며, 이더리움2.0의 경우에도 정해진 기간 내에서 가입할 수 있도록 상품을 설계

〈표 1〉 국내의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가 제공하는 스테이킹 상품의 보상률

업비트	이더리움2.0	코스모스	에이다			
	5.00%	24.00%	2.90%			
코인원	클레이튼	코스모스	테조스			
	5.89%	9.82%	5.63%			
빗썸	퀀텀	에이다	솔라나	폴카닷	이더리움2.0	
	2.50~3.50%	2.00~3.00%	2.50~3.50%	6.00~7.00%	ETH 보유량에 따른 분배	
코빗 (서비스 예정)	카르다노	테조스	솔라나	폴카닷	쿠사마	이더리움2.0
	~5.2%	~4.02%	~8.41%	~14.83%	~14.78%	ETH보유량에 따른 분배

자료: 업비트, 코인원, 빗썸, 코빗 가상자산 사이트 참고

□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스테이킹 서비스가 주요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증권성 여부를 점검하고, 향후 투자자 보호를 위해 보안 및 보상 분배 구조 등 스테이킹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제도적 마련이 필요**

— 2022년 9월 이후, 이더리움이 PoW에서 PoS로 전환하는 2.0 업데이트에 따라 스테이킹에 대한 수요는 증가

4) Kohn, A., 2023. 4. 11, Simulating Shanghai sell-side: Investigating the ethereum unlock, Glassnode.

- 이후 2023년 4월 추가적으로 이더리움2.0의 상하이 업데이트가 진행되었으며, 이더(ETH) 스테이킹 제공업체는 전월 대비 약 3배 더 많은 기관투자자의 스테이킹 유입을 이끔[5)]

— 스테이킹 서비스의 높은 이율로 인하여 투자자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이러한 고수익률을 유지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자는 보안이나 보상 분배 구조를 불투명하게 만들 수 있음

- 이러한 경우에 투자자가 투자한 자산의 운용에 대한 투명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투자자는 높은 수익을 기대하며 자산을 투자하지만 서비스 운영자의 문제 발생이나 보안상의 이유로 자산이 손실될 수 있음

— 스테이킹 서비스는 해킹이나 기술적 결함 등으로 자산이 손실될 수 있고, 정해진 기간에 언스테이킹(출금)하는 것이 불가하기에 가상자산의 가치가 급락하게 되는 경우 가상자산을 스테이킹에 예치한 사용자가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

— 국내 금융당국에서도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증권성 여부 판단 작업에 착수하면서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해서도 점검에 나선 것으로 알려짐[6)]

- 스테이킹은 상당히 높은 보상률에 따라 코인을 지급하고 있으하고 있는 만큼 향후 국내에서도 증권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포함한 스테이킹에 대한 제도적 마련이 필요

연구원 맹주희

5) Sandor, K., 2023. 4. 22, Ethereum's Shanghai upgrade spurs institutional investment into staking, CoinDesk.

6) 뉴스원, 2023. 2. 24, 금감원, 가상자산 거래소 '스테이킹'도 점검...규제 여부 '촉각'.